

LG화학, 해외 매출액 4조6000억원

2005년 총매출 9조원의 50% 상회 ... LG그룹 해외매출비중 급상승

LG그룹이 2004년 전체 매출 82조원 가운데 60조원을 해외시장에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
LG그룹에 따르면, 2004년 LG 계열사 매출 82조원 중 내수시장 매출은 22조원에 불과했으며 수출이 41조원, 해외법인 매출이 19조원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 73%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2002년에는 전체 매출 56조3000억원(GS 및 LS 매출 제외)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 48조3000억원으로 해외매출 비중이 67%를 나타냈고, 2003년에는 66조8000억원의 매출 중 72%인 48조3000원을 해외에서 올려 해외매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.

2005년에는 94조원의 매출목표 가운데 70조5000억원을 해외시장에서 올려 해외비중이 75%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, LG전자와 LG화학, LG필립스LCD 등 주력 계열사의 해외매출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.

LG전자는 2003년 29조2000억원의 매출 가운데 내수매출 4조8000억원을 제외한 84% 인 24조4000억원을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였고, 2004년에는 35조3000억원의 매출 중 86%인 30조2000억원을 해외에서 올렸다.

LG필립스LCD는 2003년 매출 6조313억원의 84%(5조534억원)를 해외에서 올린데 이어 2004년에는 8조799억원 중 7조2981억원을 외국에서 벌어들여 해외매출 비중이 90%로 높아졌다.

LG화학은 해외에서 2003년 2조6000억원 벌어들여 해외비중이 41%, 2004년에는 3조8000억원으로 47%를 기록한데 이어 2005년에는 매출 9조원 가운데 4조6000억원을 해외에서 올려 해외비중이 처음으로 50%를 넘어설 전망이다.

LG그룹의 해외법인 수는 2003년 말 141개에서 2004년 말 150개로 늘었으며, 76개를 LG전자가 운영하고 있고 LG화학은 21개, LG필립스LCD는 7개, LG상사가 역시 7개를 운영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4/06>